즉시 배포용: 2022년 1월 2일 **KATHY HOCHUL** 주지사

HOCUL 주지사, 규제되지 않은 약국 혜택 관리자에게 투명성과 포괄적인 규제 구조를 제공하는 획기적인 법안에 서명

*법안 **S.3762/A.1396,** 약국 혜택 관리자에게 인허가를 받고 등록하도록 요구*

법안, 제약 비용에 투명성을 제공하고 소비자가 건강 관리에 대해 더 많은 정보에 입각하여 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

Kathy Hochul 주지사는 약국 혜택 관리자에게 인허가를 부여하고 등록하도록 요구하는 S.3762/A.1396 법안에 서명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법안에는 또한 PBM이 서비스를 수행할 때 준수해야 할 의무와 책임이 명시되어 있으며, 금융 서비스 부처가 법을 집행하고 소비자, 약국, 의료 서비스 제공업체로부터 불만을 접수 받도록 허용합니다.

Hochul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글로벌 공중 보건 위기 속에서, 우리가 모든 기회를 이용하여 뉴욕 시민들의 건강 관리 시스템을 개선하고 비용을 절감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 획기적인 법안은 미국에서 약국 혜택 관리자들을 위한 가장 포괄적인 규제 체계를 마련하여 소비자의 투명성을 재고하고 처방약의 비용을 조명합니다. 의약품 및 보험 관련 비용을 탐색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훨씬 쉽게 하기 위해 이 법안에 서명하게 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법안 S.3762/A.1396은 약국 혜택 관리자에 대한 인허가를 요구하고 서비스 제공자로서의 의무와 책임을 명시합니다. 이 법안은 또한 약국 혜택 관리자가 법을 위반했을 때 금융 서비스 부처가 민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약국 혜택 관리자가 법과 규정에 의해 제정된 기준을 준수하도록 보장할 것입니다.

금융서비스국(Department of Financial Services)의 관리자 대행인 Adrienne A. Harris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금융서비스국은 오랜 우선 과제였던 이 역사적인 법안을 실행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약국 혜택 관리자의 규정은 높은 처방 약값이 소비자와 건강보험료에 미치는 영향을 해결하는 데 있어 중요한 다음 단계를 나타냅니다. 우리는 Hochul 주지사가 국내에서 가장 포괄적인 약국 혜택 관리자 규제 체제를 확보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마침내 우리가 이 비규제 산업에 필요한 개혁을 가져올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Neil Breslin 상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PBM(약국 혜택 관리자) 산업은 오랫동안 규제를 받지 않았습니다. 약국 혜택 관리자는 환자의 복지를 희생시키면서 이곳 뉴욕과 전국의 투명성 부족을 이용했습니다. 이러한 환자 중심의 법안은 PBM을 우리의 의료 제공 시스템의 다른 모든 이해 관계자들이 요구하는 탁월한 기준에 부합하도록 유지할 것입니다. 이와 같이 매우 중요한 법안에 서명해 주신 Hochul 주지사님께 감사드립니다."

Richard Gottfried 하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PBM은 약값 상승의 주요 요인으로 폭넓게 인식되고 있습니다. 효과적인 규제 없이 비밀리에 운영되는 블랙박스였고, 의료보험이 체인 약국과 합병하면서 독립적인 약사에 대한 PBM의 학대가 심해지고 있습니다. 이 새로운 법안은 의료 시스템의 이 분야에 효과적인 감독과 투명성을 제공할 것입니다. 이 법안을 법제화하기 위해 힘써준 Hochul 주지사, Neil Breslin 상원 후원자, Carl Heastie 국회의장, 제 의회 동료인 Kevin Cahill 의원과 John McDonald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

다음 웹 사이트에 더 많은 뉴스가 있습니다: www.governor.ny.gov
뉴욕주 | Executive Chamber | press.office@exec.ny.gov | 518.474.8418

구독 취소